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College Students

김승용*, 윤미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Seong-Yong Kim(ksyaca@bu.ac.kr)*, Mi-Sun Youn(ymsrose@b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간의 관계와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대학생 190명으로 2018년 5월 28일-6월 15일까지 설문지로 수집하였고, 분석은 SPSS 20.0으로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노인차별의식 영향여인 확인을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차별의식은 노인접촉경험($r=-.353, p<.01$), 조부모와 유대감($r=-.266, p<.01$), 효의식($r=-.35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 영향 요인은 효의식($\beta=-.354, p<.001$)과 노인지식($\beta=.281, p<.001$)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노인접촉경험과 조부모와 유대감이 예측변인으로 변인의 총 설명력은 29.1%였다.

■ 중심어 : | 노인차별의식 | 노인접촉경험 | 조부모와 유대감 | 효의식 |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eople's consciousness of discrimination, elderly contact experience, grandparents' bonding, recognition of filial piety in College 190 Students and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The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May 28 to June 15,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s perception of the elderly was related to the elderly's contact experience ($r = -.353, p <.01$), grandparent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r = .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elderly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are recognition of filial piety ($\beta=-.354, p<.001$)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beta = .281, p <.001$), the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grandparents' bonding.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29.1%.

■ keyword : | Elderly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 Elderly Contact Experience | Grandparents' Bonding | Recognition of Filial Piety | College Student |

1. 서론

노인은 노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다. 노인은 연령을 더

함에 따라 권위를 부여 받았지만[1], 최근에는 오히려 젊은 세대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일자리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의 위험성이 나타났

접수일자 : 2018년 09월 28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9일

교신저자 : 윤미선, e-mail : ymsrose@bu.ac.kr

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갈등을 넘어 노인을 차별하거나 심하면 혐오까지 이르는 시대적 분위가 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차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1980년 이전에 노인들의 차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주 내용은 다른 연령대 보다 노인 및 노화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차별행동을 하게 되며, 노인은 노동과 고용 및 사회적 제도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보았다[2]. 이후 Palmore[3]에 따르면 노인차별은 노인을 점차 주변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 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차별 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러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태도 연구[4]를 비롯하여 차별 행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5]. 이후 김미혜 등[6]은 청년, 중년, 노년으로 나뉘어 세대별로 노인 차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를 제공하였다. 이후 중년의 차별경험이 노인을 차별감[7]으로 발전하고 심지어 학대로도 발전한다고 하였다[8].

노인차별은 나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을 개인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개별적 주체로서의 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저평가하도록 만든다[9]. 나아가서 노인을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노인이 당연히 누리는 자원이나 기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노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부터 불이익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으로서 역연령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10]. 즉, 노인차별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해 사회적 기회와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11]. Bythewa를 시작으로 하여 주로 서구에서 발전해 온 노인차별주의 논의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정서는 이들에 대한 배제와 억압으로 이어져 사회 내에서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 방식을 부정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구조적 관계로 굳어지게 만든다[12].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틀딱’이란 말

이 상징적인 예로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관념화하는 대표적인 네이밍일 것이다. 틀딱은 ‘틀니를 딱딱거리다’는 의미로 ‘틀딱들 개극혐(극히 혐오함)’에서 보듯이 젊은 층이 노인들을 비하하는 세대 간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13].

노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14] 젊은이들의 규범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다른 연구[15]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었다. 요즘 젊은이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의식을 갖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들이 다음 세대에 주축이고 부양이 되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부양의 주체가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인차별인식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노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우울이나 자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함에도 차별적 언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노인이 자신이 차별감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2년 동안 노인이 느끼는 차별감은 연구한 논문[6][16-18]은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 등 노인이 아닌 연령층이 인지하는 노인 차별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과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차별

노인차별은 나이차별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원하는 평등한 대우가 거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 Butler[2]는 처음으로 노인차별(ageism)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노인에 대한 극도의 편견과 지속적인 차별, 심한 거부반응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에 이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차별로 인식되었다.

노인차별은 차별 자체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17]. 특히 대학생들이 노인을 차별할 때는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10]은 노인과의 접촉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차별적 태도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8] 젊은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노인 차별의 한 형태인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을 하였을 때도 고용에서 차별을 겪고, 모욕적인 언어표현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21]고 하였다. 또한 노인에게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등에서 오히려 노인에게 낙인을 찍고 비인간적으로 대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22]. 노인에 대한 차별은 노인에 대해 낙인의 요소를 보유했을 때 노인이 라는 사실이 더해져서 이중의 낙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23]. 더불어 노인에 대한 차별은 낙인, 혐오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24]. 젊은층의 노인 차별은 서론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세대 갈등을 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2. 노인 접촉 경험

노인에 대한 편견과 연령차별적 시각이 팽배한 사회에서 세대 간에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해 진다면 노인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9].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중

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접촉의 빈도가 많아서 연령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면서 노인층과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25].

도시화는 노인과 다른 연령층의 세대간 접촉 교류 기회를 제한하였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핵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세대 간의 접촉이 적어지면서 세대 간의 교류 기회는 점점 더 희소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된 접촉 및 교류의 기회는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증대하여 ‘노인과 다른 세대’라는 벽을 쌓아 노인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선이 단위이고 가족의 생산의 거점이었지만, 점차 가정과 일터가 구분되면서 가정 안에 있던 노인과의 접촉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젊은이는 도시에 거주하고, 노인들은 농촌 등 전통 사회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연령간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어 결국 노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는 감소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차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10].

3. 조부모와 유대감

성장기에 조부모와 유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대학생들의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조부모와의 경험적 접촉이 많을수록 손·자녀들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연구[26]와 조부모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청년들이 조부모들에게 친근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27]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연구[28]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부모와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노인차별감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어떤 사람과 유대를 형성하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효의식

효는 윤리·도덕적 의무로서 우리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29].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효의식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31]. 이처럼

효의식은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의 국가로서 오랫동안 지켜온 사회적 규범으로서 대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효 의식에 관한 연구는 효의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는 문헌연구[32]가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3][34]도 이루어졌으며, 주로 효의식과 부모 혹은 노인부양의식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였다.

부양의식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남녀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을 조사한 이창식, 김윤정[35]은 부모부양의식 동기로 효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효의식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애착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의 효 의식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숙희, 신희식, 이신정[36]은 중학생의 효 의식을 연구하면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 효의식도 높았으며, 이러한 효 의식은 효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효의식과 노인차별의식을 보면, 효의식이 높을수록 노인차별의식도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37][38]하고 있어서 효의식이 노인차별감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초기연구는 Tuckman과 Lorge[39]로 시작하여 Palmore의 척도 개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40].

노인지식과 관련한 연구는 국가별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비교 한 연구결과[41]에 따르면, 한국 대학生の 지식은 12.1점, 미국 대학生の 지식은 12.7점이었다. 미국대학生の 노인에 대한 전반적 지식수준이 한국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미국 대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부정적으로 고착되었을 때,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은 노인을 왜곡하여 차별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42]. 대학생의 시기는 인생주기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이들이 노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인차별을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과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에 대학생이며, 편의표집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2.1 노인 차별 의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 차별 의식 척도는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2012)[6]의 연구에서 노인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회피 7문항, 행동적 요인의 차별 5문항, 인지적 고정관념 6문항으로 총 18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2012)[5]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1$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85$ 이었다.

2.2 노인 접촉 경험

노인 접촉 경험은 일반 노인과 접촉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39]이 개발하고 서보림(2015)[28]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인 접촉 빈도 3문항과 노인 접촉의 질 3문항으로 총 6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 접촉 빈도가 높고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보림(2015)[28]의 연구에서 노인 접촉 경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9$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50$ 이었다.

2.3 조부모와 유대감

조부모와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의순, 조병은

(1990)[38]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부모와 유대감 총 15문항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와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의순, 조병은(1990)[3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57이었다.

2.4 효의식

효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Gallois등 (1999)이 개발한 서보렴(2015)[28]이 사용한 효의식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보렴(2015)[2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88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90이었다.

2.5 노인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해 Palmore(1999)[3]가 개발한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를 장현숙(2015)[20]의 연구에서 신체적 영역과 사회심리적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수정하여 연구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해 옳은 답인 ‘그렇다’ 1점으로,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현숙(2015)[19]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76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721이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3.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4년제 대학에 조사자가 직접 대학생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응답한 내용의 비밀유지와 연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5분정도 소요되었다. 총 21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19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 관련 특성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노인 지식, 노인 접촉 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의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이 노인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N=190)

변인	구분	N	%
학년	1학년	59	31.1
	2학년	81	42.6
	3학년	26	13.7
	4학년	24	12.6
성별	남성	40	21.1
	여성	150	78.9
나이	(M) 21.60세 (SD ±1.848)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108	56.7
	무교	82	43.2
전공	인문, 사회, 복지, 기독, 기타	81	42.6
	자연과학, 보건	109	57.4
노인 봉사 경험	있다	151	79.5
	없다	39	20.5
조부모 동거 경험	있다	82	43.2
	없다	108	56.8
조부모와 동거 기간	(M) 8.16년 (SD ±7.441)		
노인 교과목 수강 경험	있다	22	11.6
	없다	168	88.4

특성별로는 학년은 2학년 81명(42.6%), 성별은 여성 150명(78.9%), 종교는 있으며 기독교,천주교,불교가 108명(56.7%), 전공은 자연과학, 보건 109명(57.4%), 노인봉사 경험은 있음 151명(79.5%), 조부모 동거경험은 없음 108명(56.8%), 노인교과목 수강 경험은 없음 168명(88.4%)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나이는 평균 21.60세 (SD ±1.848)이며, 조부모와 동거기간은 평균 8.16년(SD ±.744)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노인 차별의식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노인차별의식 정도는 [표 2]와 같다. 변인별로 노인차별의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학년은 4학년이 평균 2.16(±.38), 성별은 남성이 평균 2.09(±.29), 전공은 인문,사회,복지,기독교,기타가 평균 2.12(±.36), 노인봉사경험은 없는 경우가 평균 2.09(±.38), 조부모동거 경험은 없다가 평균 2.09(±.35), 노인교과목 수강 경험은 있다가 평균 2.13(±.40)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와는 차이가 없었고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노인차별의식

변인	구분	M	±SD	t or F(p)
학년	1학년	2.12	±.30	2.335(.075)
	2학년	2.00	±.32	
	3학년	2.09	±.29	
	4학년	2.16	±.38	
성별	남성	2.09	±.39	2.938(.088)
	여성	2.06	±.32	
종교	있음(기독교, 천주교, 불교)	2.07	±.34	.280(.597)
	없음	2.07	±.33	
전공	인문,사회, 복지,기독교,기타	2.12	±.36	2.013(.157)
	자연과학, 보건	2.04	±.31	
노인 봉사 경험	있다	2.06	±.32	1.262(.263)
	없다	2.09	±.38	
조부모 동거 경험	있다	2.04	±.31	.165(.685)
	없다	2.09	±.35	
노인교과목 수강 경험	있다	2.13	±.40	1.444(.231)
	없다	2.06	±.32	

3.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 지식, 노인 차별 의식

연구대상자의 변인의 평균점수는 [표 3]과 같다. 노인

차별의식 평균 2.07(±.33), 노인접촉경험 평균 3.80(±.79), 조부모와 유대감 평균 3.74(±.84), 효의식 평균 3.41(±.61)로 범위의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지식은 0.46(±.20)으로 50%이하였다.

표 3. 노인 차별 의식,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변인	범위	M	±SD
노인 차별 의식	1-4	2.07	±.33
노인 접촉 경험	1-7	3.80	±.79
조부모와 유대감	1-5	3.74	±.84
효의식	1-5	3.41	±.61
노인 지식	0-1	0.46	±.20

4. 노인 차별 의식 영향 요인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 지식을 입력(Enter) 방식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 과정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0.7이상인 경우는 없으므로 선형적으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112로 자기상관이 없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40-0.945로 0.1이하가 아니며, VIF값은 1.059-1.852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840, p=.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0.291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의식(β=-.354, p<.001)과 노인지식(β=.281, p<.001) 순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노인접촉경험과 조부모와 유대감이 예측변인으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9.1%였다.

표 4. 노인차별의식 영향 요인

변수	B	S.E.	β	t	p
(constant)					
노인접촉경험	-.064	.042	-.158	-1.528	.129
조부모와 유대감	-.035	.042	-.083	-.083	.410
효의식	-.204	.062	-.354	-3.298	.000
노인지식	.409	.139	.281	3.461	.000
Adjusted R ² = 0.291, F=6.840, p<.000					

V. 결론

세대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최근 젊은이들이 노인을 차별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과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의식 정도를 봤을 때, 고학년, 남학생,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노인봉사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나이가 많음에 따라 차별의식이 많다는 연구[11][43]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고, 남학생이 더 차별적이라는 결과는 서보림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봉사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노인에게 접종의 빈도가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설정한 노인차별의식, 노인접촉경험, 조부모와 유대감, 효의식, 노인지식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즉, 노인차별의식 평균 2.07(±.33)로서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인접촉경험 평균 3.80(±.79), 조부모와 유대감은 평균 3.74(±.84)로서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 효의식 평균 3.41(±.61)로 범위의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지식은 0.46(±.20)으로 50%이하로 나타나 노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은 노인접촉이나 효의식은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지만, 노인에게 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아직 노인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게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치매 노인, 빈곤 노인 등에 대한 책자가 많기에 이를 습득하여 탐독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의식과 노인지식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김수진, 김미혜[7], 이지연, 한경혜[11]의 연구에서 말한 대로 효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감은 줄어들고 노인지식이 많을수록 차별감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접촉경험과 조부모와 유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아니었는데 선행연구[43]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노인접촉과 조부모와의 유대감 그 자체로는 노인차별감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연구를 더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차별을 넘어 노인 이미지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44].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노인차별의식을 약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효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 편지 쓰기, 웃어른들의 장점 파악하기, 효와 관련한 문화 활동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노인에게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차별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을 배제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연령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노인, 노년학, 노인복지학, 노인보건학 등 노인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관련 도서를 많이 탐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고용, 참여, 의사결정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교에 노인들을 만학도로 일정 부분 받아들여 학위와 관계없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서 대학생과 세대간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여성개발원,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2004.
- [2] Robert N. Butler,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 (4 Part1), pp.243-246, 1969.
- [3]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 [4] 김운정, 이창식,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5-75, 2004.
- [5]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4호, pp.89-106, 2012.
- [6] 김미혜, 김수진, 류주연,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이 연령주의(Ageism)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7권, 제1호, pp.221-236, 2017.
- [7] 김수진, 김미혜, "중년의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지위인식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제38권, 제1호, pp.187-202, 2018.
- [8] 진철숙,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기관상담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pp.193-204, 2015.
- [9] 정진웅, "반연령주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3호, pp.452-476, 2014.
- [10] 이지연, 한경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51권, 제2호, pp.1-30, 2017.
- [11] B. Bytheway, *Agesim* Bristol, PA: Open University Press, 1995.
- [12] 김주현,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제38권, 제1호, pp.69-104, 2015.
- [13] 김효정, "신조어 '틀딱', 연령차별주의를 말한다," *주간조선*, 제2440호, 2017.
- [14] 강하나, "미디어의 이용 정도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9권, 제3호, pp.873-884, 2018.
- [15] 이미경, 최인호, 정세훈, "기업 페이스북에서 긍정·부정 댓글이 소비자들의 태도, 규범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4호, pp.51-71, 2013.
- [16] 조성희, 김경미,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제71권, 제3호, pp.359-387, 2016.
- [17] 구혜영,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2권, 제4호, pp.141-165, 2017.
- [18] 천희란, 김일호, "노인차별과 정신건강: 감정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9권, 제5호(B), pp.2741-2754, 2017.
- [19] 강희실,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과 인식*,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2004.
- [20] 장현숙,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논문, 2016.
- [21] N. Graham, J. Lindsay, C. Katona, J. M. Bertolote, V. Camus, J. R. Copeland, C. A. Mendonça Lima, M. Gaillard, M. C. Gély Nargeot, J. Gray, L. Jacobsson, Kingma, M. N. Kühne, A. O'Loughlin, W. Rutz, B. Saraceno, Z. Taintor, and J. Wancata, "Reduc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 technical consensus statement," *International J. of Geriatric Psychiatry*, Vol.18, No.8, pp.670-678, 2003.
- [22] 박채리, 정순돌, 안순태, "노인에 대한 낙인에 영

- 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1호, pp.385-416, 2018.
- [23] K. Conner and D. Rosen, “You’re nothing but a junkie: The multiple experiences of stigma in an aging methadone maintenance population,” *J.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Vol.8, No.2, pp.244-264, 2008.
- [24] 안순태, 오현정, 정순돌,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37권, 제2호, pp.309-328, 2017.
- [25] 김주현, “연령주의(Agesim)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역사*, 제82권, pp.361-391, 2009.
- [26] 변명연, 김은경, “세대통합교육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43-155, 2011.
- [27] 최슬기, 최세은, “세대간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의 비교 연구,” *조사연구*, 제13권, 제1호, pp.89-112, 2012.
- [28] 서보림, *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 예측모델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5.
- [29] 최근덕, “효와 미래사회,” *효학연구*, 제4권, pp.85-92, 2007.
- [30] 김지영, 최상진,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8권, 제1호, pp.49-67, 2003.
- [31] 배문주, 박세정, “대학생의 효에 대한 인식과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3권 제5호, pp.275-285, 2013.
- [32] 고재욱, “효문화의 특성 고찰,” *지역사회*, 제70권, pp.101-105, 2014.
- [33] 배문주, 박세정, “대학생의 효에 대한 인식과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3권, 제5호, pp.275-285, 2013.
- [34] 유계숙, 유행, “한국과 중국 대학생 자녀의 효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3-65, 2014.
- [35] 이창식, 김윤정,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의식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101-125, 2006.
- [36] 이숙희, 신효식, 이선정, “중학생의 효 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9-170, 2005.
- [37] 박의순, 조병은, “청년기 손·자녀가 지각한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족학논집*, 제2권, pp.28-62, 1990.
- [38] P. Hutchison, E. Fox, A. M. Laas, J. Matharu, and S. Urzi,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Vol.36, pp.1008-1021, 2010.
- [39] J. Tuckman and Lorge,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 of Social Psychology*, Vol.37, pp.249-260, 1953.
- [40] 김욱,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6권, pp.27-56, 2011.
- [41] 이신숙, S. Salari,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95-218, 2005.
- [42] 이영숙, 박경란, “대학생이 인지하는 남녀노인의 고정관념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제19권, pp.83-108, 2003.
- [43] Michael J. Cullen, Shonna D. Waters, and Paul R. Sackett, “Testing Stereotype Threat Theory Predictions for Math-Identified and Non-Math-Identified Students by Gender,” *Human Performance*, Vol.19, No.4, pp.421-440, 2006.
- [44] 한선보, 이현심,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기법을 이용한 ‘노인 이미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253-263, 2016.

저 자 소 개

김 승 용(Seong-Yong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교육

윤 미 선(Mi-Sun Youn)

정회원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 임신, 분만, nursing simulation, e-learning.